

YULLIN
Newsletter

예배의 감격이 있는 교회 ——— 삶의 감동이 있는 성도

열린신문

(대한예수교장로회) 열린교회는 1993년 12월 12일, 방배2동의 작은 지하실에서 설립되어 1998년 10월에 방배동 예배당으로, 2002년 4월에 평촌 현 예배당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열린교회의 비전은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예배, 참된 목양, 체계적인 양육과 훈련을 통해 참된 신자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열린교회의 이름은 요한계시록 3장 7절~8절에 근거한 것으로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향하여 하늘을 열어 주신 교회”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열린신문>은 8면으로 이루어졌으며, 열린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열린교회는 본 신문을 매개로 외부성경공부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를 발견하신 분은 1661-4372로 제보 바랍니다.



성경 토크아보기

선하심과 인자하심

시편 23편은 너무도 유명한 시입니다. 교회 역사에서도 가장 많이 애송되어온 시일 것입니다. 이 시가 이렇게 사랑받는 이유는 여섯 절의 짧은 내용 속에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을 담고 있고, 그 여정 가운데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찬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로 시작해서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로 마치는 내용 중에서 특별히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가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의 ‘선하심’은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하셨을 때의 단어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이미 우리 인생에 가장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고 완벽하신 계획, 이것이 토브입니다.

‘인자하심’은 ‘헤세드’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말로 번역이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대하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키워본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인자’라는 말 하나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을 한 단어로 번역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헤세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토브’와 ‘헤세드’가 반드시 나를 따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른다’의 원 단어 ‘라다프’는 ‘추격하다’는 뜻입니다. 사자가 먹잇감을 발견하고 집중하여 쫓아가거나 화살이 과녁을 향해서 날아가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경로를 조금도 벗어나지 않고 한치의 틀어짐도 없이 온전하게 쫓아가는 모습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애절하고 따뜻한 그 마음이 한 번도 내 인생을 벗어나지 않고 이렇게 쫓아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뒤에서 이 두 개의 바람이 불어서 내 인생을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는 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토브와 헤세드가 일평생 나를 따라왔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여호와와 집에 거할 수 있습니다. ☆



📖 텍스트와 콘텍스트

인생의 모순을 이겨내는 지혜



김성진 담임목사

들어가는 말

많은 학자는 전도서의 저자를 솔로몬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가장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으로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살았으면 안 되는데 하는 아쉬움을 기록해서 후손들에게 남긴, 유언과 같은 책입니다.

모순된 인생

본문에서 전도자는 인생이 참 모순된다고 지적합니다.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15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의인이 장수해야 하고, 악인은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운명이 바뀌어 나타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흥왕과 의인의 고난이라는 문제가 어느 시대에나 있었는데, 전도자는 이 모순적 현상을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가 제시한 대안이 본문 16-17절입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이 본문을 읽으면서 17절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악인이 되고 지나치게 우매한 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보다 빨리 심판받아서 일찍 죽는다고 하는 것은 동의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동의되지 않는 부분은 16절 말씀입니다. 의에 지나침이 있고, 지혜에 지나침이 있을까요?

히브리어 원문에서 이것을 그대로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너무 자주 의인인 척하지 말고, 너 스스로 과도하게 지혜로운 척하지 말라.”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 ‘지나치게’라고 번역한 단어가 사실은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횡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너무 자주 의인인 척하지 말라”입니다.

의인이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당하는 것이 인생의 모순이라고 살펴보는 맥락에서, 전도자는 이것이 사실은 착시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의인이 비록 말하는 내용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과도하게 지혜를 이야기하고, 너무 자주 의인인 척하는 그것이 그 사람을 스스로 멸망하게 만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 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네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전 7:15-22)

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인이 흥왕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악인이 그렇게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데도 그렇게 멸절하게 잘 살 수 있는가의 문제에 관해서는 17절의 첫 구절이 중요합니다. “너무 자주 악한 일을 하지 말라.” 이곳에서 전도자는 악한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그것이 곧 어리석은 자의 삶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숨어있는 큰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두 번의 죄악을 즉각 심판하시지 않고 인내하심으로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들이 흥왕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방관하시거나 동조하시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들의 죄를 세고 계신 중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악인이 흥왕할수록 그들의 멸망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8장 11절에서 전도자는 악인들의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악에 관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솔로몬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아쉬움으로 유언처럼 기록한 전도서

의로우면서도 멸망하는 의인과 악을 행하면서도 장수하는 악인이 있는 모순적 세상을 사는 지혜는 너무 자주 의인인 척하지도 말고 지나치게 반복적인 죄에서도 떠나 치우치지 않는 중용의 삶을 살아야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인간의 불완전성을 인정하고 사람의 소리에 마음 두지 말고 비난에는 담대함으로 칭찬에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한 길을 걸어가야 ”

지금 인생의 한순간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에서는 악인이 여전히 잘 사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영원에서 악인의 심판을 이미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야에서는 악인이 죄의 길로 한 번씩 갈 때마다 심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순된 인생을 사는 지혜

그러므로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지나친 의나 지나친 악이 아닌, 가운데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네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18절).

여기에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생명의

의 날이 단축되는 것입니다.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길은 이것도 붙들고, 저것에서도 손을 떼지 않는 것입니다. 지나친 의와 지나친 악의 가운데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한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용’을 찾아가는 것으로, 결국 이것이 모순된 인생에서 심판과 재앙을 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는 이 ‘중용’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순된 삶에 대한 실천적 대안

전도자는 먼저, 인간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조언합니다.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열 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왜냐하면)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19-20절). 중용을 가진 사람, 치우치지 않은 사람이 많은 권력자보다 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의와 지혜를 과도하게 자랑하지 않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자신의 악함을 당연시하지 않고 죄악의 반복을 줄이려 하는 노력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음의 날을 앞당기는 재앙을 피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의 소리에 너무 마음쓰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네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21-22절). 전도자는 과도하게 의로운 척, 지혜로운 척하는 것과 악한 일을 반복하는 이유가 사람의 소리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사람의 소리에 자꾸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높입니다. 칭찬의 소리에 자꾸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자신을 높이게 됩니다.

악을 행하게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사람의 소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 악한 행동을 반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저주의 소리, 혹은 칭찬의 소리를 들을 때 먼저 나 자신의 연약함을 살펴보고, 누군가가 나를 칭찬할 때는 겸손하게, 누군가가 나를 비난할 때는 ‘그럴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그냥 듣고 그것을 마음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길을 정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겸손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비난에는 담대함으로, 칭찬에는 겸허함으로 마음의 요동침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인생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분명하게 해결할 수 없는, 악인의 흥왕과 의인의 고난의 문제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음을 알고, 이것을 중용과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치우치지 않게 살아야만 이 모순 속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यो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잠20:29)고 합니다. 인생을 되돌아보며 성찰하는 백발의 노인이 나누어주는 경험과 지혜가 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인생 가운데서 해결되지 않은 악의 문제, 혹은 습관적인 교만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전도자가 전하는 ‘백발의 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온가족여름말씀사경회 취재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겔18:30)

 온가족여름말씀사경회가 8월 18일(주일)부터 20일(화)까지 열린교회 본당에서 진행되었다. ‘처서 매직’도 통하지 않은 역대급 무더위 속에서 개최된 이번 사경회는 열린교회 여름집회로는 처음으로 ‘수련회’가 아닌 ‘사경회’로 열렸다.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는 주제로 세 번의 주집회와, 가정의 회복과 교회의 회복을 주제로 하는 특강이 각각 월·화요일 오전에 있었다.

<주집회>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성경이 알려주는 영적 회복에 선행되어야 할 조건은 이전의 좋은 신앙의 상태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회복의 3단계는 회귀, 회개, 회복으로서 담임목사님은 ‘회귀’에 관해서는 ‘사명의 땅으로 돌아가자’(삼상 7:3-12)는 제목으로, ‘회개’는 ‘눈물과 기쁨의 수문 앞 사경회’(느9:1-5, 33-38), ‘회복’은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렐 30:17-22)의 설교로 하루에 한 주제씩 풀어가셨다.

‘회귀’는 새생명으로 태어났던 만민의 장소로 돌아가는 것이다.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은, 첫 사역을 시작하면서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했다. 당시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는 실로였으나 ‘망대’(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라는 뜻의 미스바로 소집했다. 라반과 야곱이 최악의 20년을 서로 화해한 곳이었던 미스바에서(창31:49)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해와 용서가 있기를 원했던 사무엘은, 언약을 잇고 살았던 이스라엘에게 400년 죄악을 정리하고 “돌아오려거든”, 이방신을 제거하고,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분만 섬기라고 하는 신명기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스라엘이 이에 따랐을 때, 영적 회복과 외적 회복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는 수백년 동안 그들을 괴롭히던 블레셋을 이기게 해주셨다. 말씀을 듣고 뒤돌아보며 어디서 무너진 것인지 발견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작은 결단이 우리 인생을 바꾼다.

‘회개’에 관해서는 성경에서 가장 오랜 시간, 가장 큰 규모의 회개운동으로서 모든 회개운동의 원조가 되는 기원전 443년 7월에 일어난 사경회에 대해 말씀하셨다. 제2성전이 세워진 이후 50년이 흐르면서 정치·사회·종교 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타락한 상황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사 에스라가 읽어주는 성경을 (적어도) 네 시간 동안, 일어서서 들었고 이것은 큰 통곡으로 이어졌다. 이어서 지도자들의 회개와 결단으로, 그리고 온 백성이 함께 광야생활 이후에 끊겼던 초막절을 지키는 회개와 결단으로 연결되었다. 이스라엘은 이방신과 이방문화에 젖어있었던 죄와 단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고 결단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기쁨이 승리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이며 성도의 삶은, 말씀 지키면 기쁨→또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정이 ‘자가발전’되어 순환되는 삶이며, 삶이어야 한다.

‘회복’은 죄를 버리기로 결단하는, 준비된 자들이 받는 은혜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개인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증거는 상처가 치유되어 새 살이 돌아나며, 무너져서 폐허가 된 터전이 회복되고, 감사의 노래와 기쁨의 찬양이 나오도록 삶이 변화되는 것이다. 언약적인 측면에서의 회복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실 새 언약은 (돌판이나 책이 아니고) 마음판에 기록하여 주시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책으로 읽는 것

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회복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왕과 제사장으로 보내셔서 궁극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다.

<특강>

①청교도 가정관

가정을 ‘작은 교회’로 보았던 청교도들은 이 ‘작은 교회’가 건강해야 ‘큰 교회’가 잘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원종천 교수님(ACTS 역사신학)은 청교도들의 유산인 소요일문답 1항에 나오는 인간의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에서 가정의 목적을 찾아가셨다. 즉 하나님의 속성들을 우리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뜻이며, 아무리 소중한 가정과 가족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자리에 두면 결국은 무너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면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곳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언약가정’이 됨으로써이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관계인 ‘언약’은 무조건적 사랑과 헌신, 그리고 그에 대한 기쁨의 반응이라는 두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먼저 사랑해주신 것에서 언약 관계가 시작된 것처럼 가정은 남편이, 또 부모가 베푸는 무조건적인 사랑에 순종으로 표현하는 관계가 되어야 하며, 이러한 언약관계(↔계약관계)는 ‘은혜’ 분위기를 형성하여 서로 용서하는 관계가 된다.

이런 언약가정의 유익은 이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 발휘되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며, 능력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또한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나도 용서받을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는 친밀함을 누릴 수 있다. 즉 언약→은혜→능력→친밀함의 사이클이 계속 강화되어 돌아가는 곳이 가정이다.

②교회, 하나님의 가족

마태복음 1:1~16의 다소 의외의 본문으로 시작한 이정규

목사님(시광교회 담임)의 강의를 ‘복음’과 ‘교회’의 상관성에서 주제의 실마리를 풀어가셨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로서, 명령이 아닌 ‘소식’인데 ‘내가 죄인이다’라는 나쁜 소식과 ‘그럼에도 내가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좋은 소식을 포함하고 있다.

당시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을 소개하는 이력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족보’였는데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 족보를 보고 1세기 독자들은 충격에 빠졌을 것이다. 그 이유는 여자를 등재하지 않던 당시의 관행을 깨고 5명의 여자를 포함시켰으며 더구나 마리아를 제외하고 나머지 4명은 이방인이었다. 또한 악한 사람까지도 모두 포함시킨 족보이며, 선한 사람들에 관한 기록에서도 ‘굳이’ 그 사람의 흠을 기록한 족보이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목사님은 마태복음 12장 50절의 “누구든지...내 형제요...어머니이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나같은 죄인도 그리스도의 족보에 포함될 수 있는 감격을 표현하셨다.

이렇게 그리스도께 용납받고 사랑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기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지체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복음적으로 교회를 대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항상 기억하여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셔서 당신의 족보 안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이모저모>

이번 사경회 기간에는 교회학교(유아부~소년부, 사랑부) 말씀사경회도 함께 열렸다. 또한 맛있는 특식(반계탕)도 준비되어 교우들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다. 이외에 주일 오후 열린카페 테라스에서의 ‘열린버스킹-보시기에 좋았더라’ 공연이 있었고 주집회마다 쏘노찬양팀의 찬양, 워십댄스와 일러스트, 온세대 찬양팀의 찬양 등 형형색색의 정성스러운 준비가 돋보이는 순서들이 여름사경회의 색다른 기쁨을 느끼게 해주었다. (편집부) ☆

교회 소식



이단대책세미나

-일시: 9월 1일(주일) 오후 4시
-강사: 신현욱 목사

온가족 토요 새벽기도회

9월부터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전 5시30분에 진행

제5기 세빛교실

9월 7일~28일 (매주 토요일) 오전11시~12시 30분

53기 토요교리반

-일시: 9.21.(토)~11.30.(토) 오후7시 (*11.9. 휴강)
-강사: 김성진 담임목사

14기 구약개관학교

-일시: 9.21.(토)~11. 23.(토) 오후7시
-강사: 김대웅 목사(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구약학 교수)

포토에세이

사진: 김범무(장년6교구)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시56:3-4

여름성경학교(유치부) 후기

무더위만큼 감격스러웠던 여름성경학교



김보라 장년1교구
bora1210@gmail.com



여름이 다가오면서 교회학교 여름 사역에 대한 기대가 날로 커지게 되었습니다. 영아부에서 고등부에 이르기까지, 이번 여름은 아이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특히 저희 아이가 속한 유치부의 성경학교의 내용이 더욱 궁금했습니다. 성경학교 날짜는 7월 13일이었지만, 6월 22일과 29일에 성경학교를 위한 연합기도회를 가졌고, 또 7월 8일, 9일, 11일로 이어지는 유치부 학부모와 교사 온라인기도회를 가지며 아이들에게 주실 은혜를 간구하였습니다. 다른 부서를 섬기고 있다는 핑계로 아이를 맡겨두기만 한다는 죄스러운 마음과, 우리 아이의 예배 현장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 스태프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학교 전달, 온라인으로 짧은 스태프 모임을 가지며 성경학교의 일정을 안내받았습니다. 일정과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교사분들이 얼마나 정성을 다해 아이들을 위해 하나하나의 과정을 준비하셨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유치부 전도사님께서는 모든 아이를 같은 사랑의 크기로 대해 달라고 당부하셨는데, 그 말씀에서 한 명의 아이도 상처받거나 마음 상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사랑의 마음이 느껴져 또 한번 감동받았습니다.



성경학교날 아침, 7세 찬양팀 아이들의 앙증맞은 율동과 함께 성경학교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스태프들은 먼저 1층에서 모였고, 혹시라도 아침을 걸렀을까 준비해주신 간식이 참 감사했습니다. 작년에 고등부를 졸업한 새내기 청년들이 스태프로 지원한 것을 보며 참 아름다운 청년으로 성장한 그들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도 나중에 꼭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귀한 일꾼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소망의 마음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모임을 마친 후 유치부실로 올라가 아이들의 공과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선생님들의 열띤 설명이 이어지고, 아이들은 반짝이는 눈망울로 설교에서 배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한명 한명의 교구와 교재를 챙기시며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주시던 선생님의 모습에서 아이들을 향한 열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음식들로 알차게 준비하신 점심을 든든히 먹고, 성경학교 프로그램 중 가장 기대되던 코스웍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결

코 쉽지 않은 풍선 함께 옮기기, 서로 협동하여 물풍선으로 물을 옮겨 물통 채우기, 강풍과 폭우에 맞서 역경 이겨내기, 입김으로 탁구공 옮기기 등 선생님들의 기발한 아이디어로 준비하신 프로그램들이었습니다. 더운 날씨였지만 각각의 코스를 땀을 뻘뻘 흘리며 최선을 다해 해내는 아이들의 모습이 정말 기특하고 대견했습니다.

코스웍이 끝난 후, 시원한 음료로 열기를 식히고, 유치부 선생님들의 연극이 이어졌습니다. 선생님들의 열연을 보며, '내가 저 자리에 있었다면 과연 저런 혼신의 연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아이들을 향한 선생님들의 헌신의 모습에 또 한번 도전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연극의 내용은 선한 목자를 뽑는 오디션으로 진행되었는데, 양을 이용해 돈을 벌려는 사꾼 목자와 양을 잡아먹으려는 늑대에게는 야유를 보내고, 양을 보호하기 위해 온 몸을 던지는 선한 목자의 모습에 응원을 보내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사랑이 아이들의 마음에 단단하게 새겨지기를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전도사님의 설교가 이어졌고, 아침부터 계속되는 프로그램에 많이 지쳐 보였지만,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눈을 비비며 말씀을 듣기 위해 잠을 깨려 노력하는 아이들이 참 대견했습니다. 마지막 프로그램이었던 공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밤, 아이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성경학교 끝났어?" "아니, 성경학교는 다음 주 예배까지 이어진대." "다행이다." "왜? 성경학교 재미있었어?" "응!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이들을 위해 수고하신 전도사님, 모든 교사분들, 스태프분들의 헌신과 수고만큼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히 채워졌던 유치부 여름성경학교였습니다. ☆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놀이도 재미있었고, 오전집회 예배와 오후 집회 예배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빛을 비춰주시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양은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양인 나는 목자이신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들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밥도 맛있고 참 즐겁고 은혜로운 여름성경학교였어요.

황지예(유년부 2학년)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저는 이번 여름성경학교 때 첫 번째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서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예수님)의 능력은 대단하구나...'를 느꼈습니다. 두 번째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서 '우리 원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귀하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게 하셨습시다' 라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갑자기 이유 모를 눈물이 나오며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에서 태초의 빛, 세상의 중심 되

시는 아주 놀라운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 되시는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들은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가지임을 알고, 가지는 나무에서 떨어지면 썩는 것같이 우리들도 하나님 품에 안겨있지 못하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지옥에 가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겼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이 네 가지의 활동들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염은송(초등부 3학년)

성경읽기가 재밌어졌어요



저는 평소처럼 부모님을 따라서 성경학교를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소년부에서 참여하는 여름성경학교였지만 별 기대도, 흥미도 없이 여름성경학교에 갔습니다. 그래도 저는 토요일에 재미있는 활동들이 많은 것을 보고 약간의 기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성경학교 둘째 날, 예배를 드리고 재미있는 활동을 하고 밥을 먹고 공과를 하고 간식을 먹다 보니 몸이 피곤했는지 저도 모르게 잠이 솔솔 왔습니다. 그래도 저는 '예배시간인데 졸진 말아야지'라고 생각해서 반쯤 잠든 상태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겨우겨우 예배를 드리고, 기도시간이 되었을 때 저는 기도를 하면서 약간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초등부의 사경회나 여름성경학교에서는 간절하게 기

도를 드리고 눈물을 흘렸지만, 그날은 좀처럼 기도가 안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김민성 전도사님이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순간, 저는 '앞으로 나가야지 그나마 기도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맨 앞으로 나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면 속의 기도제목과 참고해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저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저에게도 생명의 떡을 주셔서 제 마음을 채워주세요' 라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마지막에는 너무 울어서 말을 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평평 울고 기도하고 평평 울고 기도했습니다. 기도시간이 끝나니 뭔가 개운하면서도 답답했습니다. 기도를 더 하고 싶은 기분이 들었지만 그대로 집에 와서 잠이 들었습니다.

주일까지 여름성경학교의 모든 일정이 끝난 다음날 월요일 저녁에, 저는 갑자기 김다영 전도사님이 회심을 하고 방에서 성경을 읽었다고 말한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다 보니 학교에서도 읽고 싶는데 성경책이 너무 두꺼워서 가져가지 못할 것 같아서 A4용지에 말씀을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말씀 읽는 게 재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방에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도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심수지(소년부 5학년)



청년부수련회 후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고 갈망하며 나아감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던 와중에 문득 내가 진정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망하여 교회에 나오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저 어렸을 때부터 나오던 교회라서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며 기도한다는 생각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저의 모습이 흐릿하게만 보여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처럼 수련회 소식이 다가왔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저에게 돌아오라고 손짓해주시는 것처럼 느껴져서 주저함 없이 수련회에 참석해야겠다고 다짐했고,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수련회를 위해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부디 갈 길을 잃은 저를 일으켜 달라고, 또 하나님이 저를 이 땅에 세우신 이유를 알고 그 뜻을 감사함으로 따르게 되길, 단기적으로 변화된 모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수련회 당일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며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기도의 응답들을 분명히 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전달될 수 있길 바라고 기도했습니다. 수련회의 예배를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아버지의 자녀가 되

길 원했습니다. 무수한 저의 죄악들이 반복되지 않길 간절히 기도하며 바뀔 저의 앞날을 기대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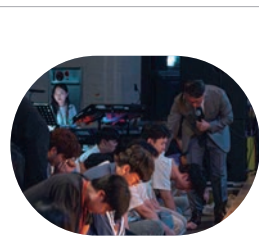
무더운 날씨만큼이나 뜨거웠던 수련회의 열기로 인하여 피곤함은 잊은 채 온전히 예배에 임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느끼며 저의 계획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저를 위해 세우신 계획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삶을 되돌아보며 그동안 꾸준히 하나님은 나에게 돌아오라 외치고 계셨다는 것을 느끼며 무력했던 삶의 이유가 바로 그분의 인도함을 벗어나 삶의 원동력인 감사함 없이 살아왔기 때문이라고 깨달았습니다. 그 사이로 저에게 고난이 찾아왔고, 저는 항상 이를 하나님께 의지하여 해결하기보다 회피하여 제 안에서 이 시련이 잊히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인의 모습인 저를 방치하지 않으셨고 그 안에서 이루어질 무수한 그분의 계획들을 마련해두셨습니다. 그 사랑의 깊이가 어떠한지 말로 형용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찬양콘서트 중 지난날의 기도 제목들을 나는 잊어도 하나님은 기억해주신다는 가사의 찬양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감사를 느끼며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안도감이 들과 동시에 저의 삶에서도 절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생각이 든 이유가 바로 기도가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였는데, 이 찬양을 통해서 저는 많은 핑계로 하나님과 자진해서 멀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아 부끄러움이 온몸을 덮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삶 속에서 고난은 끊임없이 다가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원하는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굳은 믿음으로 그의 부르심을 찾고 갈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 읽고, 제 삶에 적용하기를 다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 고동치는 저의 모습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의 현재, 그리고 나아갈 날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될 수 있게,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길 다짐해 봅니다. 죽어있던 저의 영혼을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길 원합니다. 위로받은 자의 영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은혜를 교회 공동체 모두가 알게 되길 소망합니다. 삶 속에서도 수련회와 같은 은혜가 흘러넘치길, 그 은혜로 저와 공동체 모두가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



황예인 청년부
yyat0430@naver.com



라오스아웃리치 후기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 라오스를 가다

열린교회에 온 지 꽤 되었지만 해외아웃리치는 처음이었습니다. 올해 3월에 개강한 선교학교에서 우리나라 선교의 역사와 최근의 선교 동향 등에 대해 강의들을 들던 중 강민옥 권사님의 라오스 선교에 대한 간증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그 전부터 주셨던 선교에 대한 마음에 확신이 들어 선교대원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6월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 선교사역을 준비하였습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라오스 현지의 사정과 상황을 선교사님들 통해 실시간으로 전달받고 작년의 각 교회별 사역과는 사뭇 다른 방향으로 준비해야 함을 알았습니다.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 있는 싸이싸왕교회에서 라오스 전역의 22개 지역교회 사역자와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교사 강습회와 부모교육, 어린이 사역을 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19명의 팀원들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필요한 사역들을 준비하였습니다.

7월 31일 교회에서 인천공항으로 그리고 우리의 목적지인 라오스 비엔티안 왓파이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그곳에 마중 나오신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진으로만 보았던 두 분을 보면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척박한 땅에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에 한번 더 속연해지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사역 첫날, 싸이싸왕교회를 방문하여 라오스의 역사와 라오스 선교의 역사 및 현지 정부의 기독교 탄압과 교회들의 사역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내륙 국가인 라오스는 태국의 침공과 프랑스 식민통치로 인해 비옥한 땅과 자원들을 강탈당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살림 또한 힘들어지는 상황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라오스 땅을 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선교사들이 활동하고 있고 싸이싸왕교회가 중심 되어 미디어 사역, 소수민족 사역, 청년 사역, 지방교회 증진 사역,



여성 사역 등이 계획되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셋째 날, 드디어 교사강습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교사 강습회는 목사님의 주일학교 예배의 개요, 찬양 및 율동, 공과 강습 등으로 나뉘어 팀원들이 준비한 사역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며 이루어졌습니다. 부모교육에서 어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녀의 신앙임을 강조하신 김동웅 집사님과 김정옥 권사님, 한국의 어린이 찬양을 너무 아름답게 라오어로 불러주신 김세나 사모님과 율동으로 헌신한 초등부 원희서 학생, 선한 목자와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 대해 공과를 시연한 김선희, 우진아 집사님 그리고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사역에 헌신해주신 권사님들.... 하나님이 주신 귀한 능력들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넷째 날에는 주일이라 싸이싸왕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불교국가인 라오스에서 얼마나 많이 사람이 주일 예배를 오겠어?’ 하는 저의 생각이 교만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200여 명의 성도들이 2층 예배당을 가득 채웠고 이어서 청년 찬양단의 찬양으로 예배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언어는 다르지만 두 팔 벌려 찬양하는 라오스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 이 교회를 통해 믿음의 반석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이들이 복음의 열정으로 가득 차 그리스도의 소망을 발견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한국에서 온 열린교회 선교팀이 소개되었



임지혜 장년4교구
haesol914@naver.com



고 우리는 강단으로 올라가 특송 ‘은혜’ 찬양을 한국어와 라오어로 불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예배당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차 성도들을 하나되게 하였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사역임을 경험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라오스는 공산국가이자 불교국가입니다. 또한 여러 종족이 지방 각지에 살고 있어 그들만의 토속신앙들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라오스의 우상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그리고 그 땅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라오스 사람들이 참된 복음으로 그들의 신앙과 삶이 바뀌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해외아웃리치를 통해 내가 얼마나 과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자유로운 환경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라오스 땅과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빌 1:8). ☆



새가족

▶▶ 장년

강미아(72) 윤혜빈(93)
김계성(60) 윤지영(85)
안성순(58) 이분수(34)
이능환(50) 이형하(52)
유은경(53) 최영란(74)

▶▶ 청년

장현종(04) 김원형(86)
박지명(96) 홍성원(96)
백진아(02) 진인호(88)
백한나(05) 한아름(02)
백나현(89)

태국아웃리치 후기

태국에서 만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윤우식 청년부
yus1126@naver.com



태국 아웃리치는 열린교회에서 10여 년간 여름마다 해왔던 사역입니다. 오랜 세월 함께했기 때문에 열린교회 많은 성도님이 아웃리치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시고, 기도로 오랜 시간 함께하셔서 익숙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년과 올해가 달랐던 것 중에 눈에 띄는 것은, 전도대원들의 수입니다. 예년에는 20명을 넘지 않았는데 이번 아웃리치에는 34명이 함께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34명을 모으시고 준비시키시는 일로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셨다고 생각합니다. 출발 전 많게만 느껴졌던 34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현장에서 사용하시고 이끄셨는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방법에 대해 경험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청년 15명을 포함해 총인원이 34명이라는 인원을 확정받았을 때, “현지에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과연 필요할까?” 하는 의구심이 앞섰습니다. 더군다나 출발하기 전까지 준비할 것이 많은데 많은 인원이 한자리에 모여서 아웃리치를 완벽하게 준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 출발 날짜가 가까워졌지만, 준비되어야 할 것들은 완벽해 보이지 않고, 팀원들의 마음 또한 모이지 않는 것 같아서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변하는 현지 상황들도 불안함을 증폭시켰습니다.

완벽한 아웃리치가 되기 위해 준비했지만, 결국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온전히 기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청년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떠나기 사흘 전에는 청년부 수련회가 있어서 수련회장에서 새벽예배 후 따로 모여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모았습니다. 현지에 가서는 34명 모두가 매일 밤낮으로 기도했고, 청년들은 하루 사역이 마무리된 후 다시 모여 기도회를 하며 다음 날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상황적으로 길이 보이지 않도록 하셔서 기도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만드셨습니다.

저희가 태국에 도착하기 얼마 전, 캄탈레써 GBF 선교

센터가 지어졌습니다.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예배당과 식당, 교육실 등이 갖추어진 곳입니다. 하지만 아직 지역에 홍보가 되지 않아 선교센터에 방문하는 아이들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아웃리치의 목적은 지역에 선교센터를 홍보하고 활성화하는 것이었습니다. 태국에 도착한 이틀 동안 초·중·고등학교에 방문하여 준비된 공연과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센터를 홍보했고, 하교 시간에 학교 정문에서 찬양 버스킹과 풍선아트, 전단지들을 나누며 토요일에 있을 ‘한국 문화 잔치’에 초청했습니다. 하지만 센터 사역을 시작한 첫날인 목요일, 아이들이 방문하는 시간이 되었을 때, 맑았던 하늘에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초청하러 갔던 전도팀은 비를 맞은 채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전도를 하고 돌아온 박창일 팀장님의 미안해하시는 표정과 하신 말씀이 아직 생생합니다. “미안합니다.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출발 일주일 전에 전면적으로 수정하고 준비한 계획을 다시 수정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잠16:9) 말씀이 떠오르면서도 낙심이 되었고, 34명을 모으신 하나님의 계획에 의구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후

회의를 통해 금요일 하교 시간에 맞춰 34명의 전도대원 모두가 버스킹 찬양과 전단지를 돌리며 토요일 센터 사역을 홍보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길거리에 서서 찬양을 듣는 아이들과 센터 홍보에 관심을 두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서 전도대원 모두가 가진 최선의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토요일에 있을 센터 사역을 홍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토요일에 122명의 어린이가 센터를 찾아왔고, 모두 복음을 들었습니다. 122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센터 사역을 감당하기에 34명의 전도대원 수는 완벽하게 알맞았습니다. 예년과 같은 수의 인원이 왔다면 감당하기 어려웠겠지만 34명의 전도대원을 예비하시고 준비시켜 주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보며 낙심할 때도 있었지만 그 역시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막으신 상황들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이 되어서야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듯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눈에 보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도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당장 내 삶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선택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기도로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웃리치 이후,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GBF 선교센터의 사역이 활성화되었고, 매번 30~50명의 어린이가 모인다고 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웃리치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동역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아래 열린 교회를 통해 태국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기를 지속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

추천도서

존 비비어의 순종

존 비비어(저) 윤종석(역)/두란노

존 비비어는 이 책에서 우리가 찾던 참된 보호와 공급하심의 열쇠를 소개한다. 바로 하나님의 질서 아래 사는 삶, 곧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위’에 대한 순종이다. 이는 이 시대 기독교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다. 이 책은 우리 일상에 배어 있는 ‘권위에 대한 불순종’을 숨김없이 다룬다.



“하나님께는 순종하지만 사람한테는 내가 수궁할 만해야 순종하겠다”는 신자가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하나님께만 있는 권위에 하는 복종과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위’에 하는 복종은 나눌 수 없다. 모든 권위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자유를 얻으려 권위에 반항하지만, 실상 권위를 무시할 때 우리는 자유를 잃고 만다. 저자는 자신의 넘어짐과 분투의 시간들을 공개하고 권위의 질서를 따르는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보여 주면서,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즐거이 하는 참된 순종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한다.(두란노)

중등부수련회 후기

수련회에서 주어진 미션



문소이 중등부 2학년



벌써 수련회 기간이다. 몇 달 전이 작년 수련회였던 것 같은데 벌써 이번 여름수련회가 찾아왔다니... 나는 작년 여름수련회가 재밌었고 좋은 기억으로 남았었기에 이번 수련회 또한 기대됐다. 이번 여름수련회에서 가장 좋았던 것은 말씀이었다. 반송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다.

전부터 하려고 하는데 정작 친구들에게 다짜고짜 “교회 같이 갈래?”라고 말하는 것도 이상할 것 같다는 마음과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전도를 해야 하지?”라는 의문이 있었다. 내가 이번 수련회에서 들은 말씀은 그에 대한 응답인 것 같았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리라는 것이 말씀의 핵심이었다.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후에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었다.

더 와닿았던 것은 시험기간 중에 교회를 다니는 학생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공부하는 학생들보다 공부하는 시

간이 적을 것이란 사실이었다. 이런 점이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목사님은 다른 관점으로 말하셨다.

우리가 남들보다 뒤쳐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남들보다 더 완만하고 빠른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로 인도한다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들으니 벽차 올랐다. 가끔 “나는 교회 가는데 다른 애들은 이런 시간에 숙제하고 학원 가고 더 공부하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다.

하지만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니 그런 걱정들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에 너무 든든하고 기뻐다. 심지어는 안도되기까지 했다.

이 외에도 이번 여름수련회에서는 찬양과 조원들끼리 모여 큐티하는 방식이 좋았다. 목사님은 수련회에서 나에게 한가지 미션을 주셨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나는 교회를 다녀도 이만큼이나 한다는 것을 보여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라는 것. 따라서 나는 여전히 고민하고 있다. 어떻게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것인지. ☆

고등부수련회 후기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다



황지유 고등부



 고등학교 2학년, 다들 일분일초를 아껴가며 공부하는 시기이다. 주변의 친구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원 가기에 바쁘고, 학원이 끝나면 각자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로 향하는, 공부로 가득 찬 하루를 보낸다. 그런 주변의 분위기 때문인지 나는 올해 처음으로 수련회 가기가 망설여졌다.

괜히 3일 동안 공부를 못 하면 성적이 떨어질 것 같아 학원을 생각하며 망설였다. 그만큼 수련회 전에 내 마음에는 확신이 없었고, 우선순위가 변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수련회가 끝나고 내 마음에 변화가 생겼다.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가지 못하는 나를 자책하고 다그치기에 바빴던 마음에 평화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대학교가 세상의 전부인 듯 살았는데, 삶의 의미가 변했다.

나는 이제까지 수련회에서는 울부짖으며 주님을 찾아야 하는 줄만 알았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번 수련회에서 은혜를 못 받았다고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까지 갔던 수련회 중에 제일 잠잠히 기도했고, 눈물은 가장 적게 나왔다.

하지만 나는 은혜를 많이 받았다. 원래 은혜받은 사람에게는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길 거라 믿었고, 그런 변화만이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아니었다. 이번 여름수련회가 끝난 나는 이상하리만치 마음이 잠잠했다. 주변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였을 수도 있다. 사실 나조차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전처럼 울부짖으며 기도하지 못해서 은혜를 못 받았다고 생각했다. 마음이 굳어서 기도를 못 하게 된 건 아닐까 생각했다.

그런데 나는 이미 은혜를 받았음을 바라보게 되었다. 잠잠하고 고요한 마음이 바로 은혜였다. 미워하던 사람이 사라졌고, 마음을 괴롭히던 세상의 것들이 더는 마음에 없었고, 나밖에 모르던 내가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된 건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로웠기 때문이다.

수련회 시작부터 끝까지 나를 만나달라고만 외치던 마음 또한 변했다. 이번 수련회 설교에 나온, 바울의 비늘이 벗어질 때 그를 위해 기도한 아나니아처럼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다. 나를 괴롭히던 세상의 것들이

마음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했던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경험도 나도 모르게 일어났다는 것이다.

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전혀 애쓰지 않았다. 아직도 어떻게 내가 미워하던 사람을 용서했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어느새 용서하고 있었고, 원래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 적이 없었던 것처럼 살고 있었다.

또, 내가 세운 나의 우선순위를 포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당시에 오히려 마음 한쪽에서 포기하지 못하는 내가 보였다. 그래서 기도가 끝난 순간에는 실패한 것 같은 마음이 들어 빠르게 털어내고만 싶어 했던 것 같다. 이 걸 포기하면 더 좋은 걸 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도 모르는 순간, 이미 포기하게 하셨다.

진짜 신기하게 어느 순간 내가 우선순위로 여겼던 것들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내가 되어 있었다. 우선순위가 변했다. 아직도 너무 신기하다. 무거운 짐을 탁 내려놓듯 포기하게 될 것 같았는데 그냥 없어져 있었다. 마음이 평안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주님이 스며들었다. 천천히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 있었다.

이전에 나는 공부에서 이유를 찾지 못했고, 때론 삶의 막막함 앞에 부딪히기도 했고, 의미 없는 행동의 연속이었다. 버텨내듯 살았던 하루가, 의미 없이 비어있던 하루가 가득 찼다고 느낄 수 있도록 이번 수련회에서 주님께서는 내 안으로 와주셨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만이 성공이 아니라 우리 각자 하나님이 주신 길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모두가 다양한 길을 걷고 있다. 그러니 목표가 같을 필요는 없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는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내 삶을 살고 있지만,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살고 싶다. 내 이야기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뜻을 듣는 기도를 하고 싶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회심의 은혜는 울부짖는 것만을 통해 오지 않음을, 다양한 방법으로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다. ☆

곰곰이 생각

백설공주 엄마의 거울

글·그림: 나동훈
gomgom2@designzip.co.kr

백설공주 엄마는 매일매일 거울을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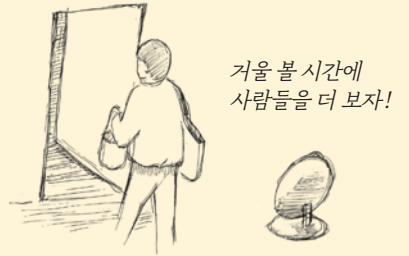
그녀가 알고 싶은 것은 제일 이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오늘도 '그 위치, 그 자리에 내가 있느냐?'입니다. 거울의 평가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저마다의 거울을 봅니다.



누구는 높아진 기준으로, 누구는 낮아진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보게 하실까요?



예수님을 알수록 점점 거울을 안 보게 하십니다. 내 앞의 사람, 내 앞의 일상에 집중하게 하십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평가에 자유로운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고린도전서 4장 3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

중등부수련회 후기

복음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김은우 중등부 1학년



 작년까지만 해도 하루하루 진행되는 여름성경학교였는데 2박3일로 진행되는 중등부 수련회는 처음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하필 수련회 날짜와 전국 야구대회가 겹치는 기간이 있어서 가족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시길 기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수련회 첫날 오전에 경기가 마무리되어서 바로 수련회 장소로 이동하여 모든 시간을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조별모임을 하게 됐는데 그동안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던 형, 누나들과 알게 되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게다가 숙소에서 룸메이트가 모두 우리 반 아이들인 걸 보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집회시간이 되었습니다. 집회 장소가 너무 커서 놀랐지만 함께 신나게 찬양하면서 그 공간을 채우니까 오히려 은혜가 넘쳤습니다. 반송환 목사님의 설교

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교회 밖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절실한 마음이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도시간이 끝나고 나니 10시가 훌쩍 넘은 상태였습니다. 시간이 엄청 흘렀는데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마음을 주셔서 기도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진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고, 그것이 정말 은혜가 되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우리에게만 세상에서 받은 상처를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내 생각보다 크고,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은 매우 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동안 말씀 읽기를 소홀히 했던 것을 회개하고 수련회가 끝나면 복음서

를 진지하게 읽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동안 기도할 때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더욱 섬기기 위해 기도하게 된 것이 기뻐했습니다.

수련회 중간에 진행되었던 체육대회와 워터밤, 그리고 친구들과 숙소에서 장난치고 이야기 나눴던 시간들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래서인지 마지막 날이 되어서 집에만 있다고 생각하니까 설레기도 했지만 아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수련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지금, 돌아보면 저에게 첫 중등부 수련회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모든 과정을 인도하여 주셨고, 재밌고 동시에 은혜가 가득한 수련회였습니다. 수련회를 통해 받은 은혜와 기도했던 것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더 가까이하고 기도로 마음을 뜨겁게 하는 시간들이 많아지길 바라봅니다. ☆



열린교회에서 처음 예배를 드린 것은 20여 년 전이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섬겨온 이전 교회에서 이슈가 생겨 함께 신앙생활을 해오던 친구들과 헤어져 이 교회 저 교회를 떠돌다가 열린교회에 나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릴 적 신앙의 모태와도 같던 이전 교회를 떠나 새로운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마음을 여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의 길을 제게 보이시고 저를 인도하소서. 저를 어디로 보내시렵니까?’ 저에게 열린교회에서의 첫 기억은 낯설고 두려움 속에 눈물로 드린 기도였습니다.

열린교인으로 등록한 것은 2011년입니다. 청년의 때 한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저기에서 예배도 드리고, 훈련도 받았지만, 떠도는 이방인과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매를 만나 가정을 이루면서 다시 열린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주일학교 체계가 잘 잡힌 열린교회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싶었습니다. 열린교회에 등록하자마자 첫째를 가지게 되었고, 첫째를 낳고 5년 뒤에는 둘째까지 낳고 기르면서 7~8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직 자녀가 어리다는 핑계로 소위 무위도식하는 신앙생활을 하며, 저의 신앙은 적당히 뜨거웠다가 다시 적당히 차가워지기를 반복하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구역장님의 권유로 2019년에 처음 아웃리치를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말도 안 나와 당황스러웠지만, 이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똑똑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집사님들의 뒤만 쫓아 다니며 어쩌면 저렇게 권사님들은 기도도 잘하시고, 전도를 잘하실까 신기해했습니다. 이후 코로나로 한동안 멈추었던 아웃리치를 2023년, 2024년 연속해서 고향으로 다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것은 두렵고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일깨우사 영혼을 바라보는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고향에서의 마지막 아웃리치라고 생각하니 어쩌면 할아버님, 할머니님은 이번이 복음을 들으실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마음에 몸이 아무리 힘들어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자녀를 낳고 부모가 되어보니 저희 부모님 사랑을 약간이나마 이해하게 된 것처럼,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다 보니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시고, 곁을 떠난 자녀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저희도 저들을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웃리치 이후 20년도부터 목양팀에서 섬김을 시작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성장반도 목양팀도 잘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임은 아직 어색했습니다. 여전히 나 자신의 신앙도 미약한데,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이 너무 두렵고 낯설었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의 미약함을 들어 사용하시고,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 제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영혼을 섬기는 자리이지만 오히려 이곳에서 목사님과 다른 목양팀 지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를 돌보고 계심을 선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때로는 두렵고 어려움을 느끼지만 처음 열린교회에 왔을 때처럼 저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떠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어려워 보이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저의 변화된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열린교회를 통해 저를 양육하시고 인도하시며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언제나 변함없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청년의 방황의 때에 처음 열린교회에 보내시고, 이곳에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케 하시고, 이제는 목양팀에서 하나님의 영혼 구원 사역에 동역자로 부르셔서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빚진 자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미약하니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저의 MBTI는 ENTJ입니다. 파워J(계획형)라서 20대 때부터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의 저의 모습을 계획하며 제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저의 열심과 노력으로 계획한 모든 일은 옳은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힘으로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겠다는 저의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삶에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얼마 전 담임목사님 설교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야곱이 자기의 상속자를 요셉으로 세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상속자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의 계획이 아니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하옵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 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출애굽기 33장 15,16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 약속의 성취이자 민족의 오랜 열망 중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그러한 소망의 성취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세의 고백은 제 삶의 우선순위에 뚜렷한 방향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가지 않으신다면 이곳 광야에 남겠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저 모세의 고백이 저와 열린교회 지체들 그리고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가장 큰 복임을 고백하오니,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



교회를 섬기는 이들

담임목사	김성진
시무장로	김기현 박정갑 금성철 황철호 김대영 박기준 김용연 성경열 김춘경 이영춘 구용희 이동훈 박희준
휴직장로	김남근
은퇴장로	임두순 이대환 김희철 박찬동 김원호
부목사	박재현 김동기 박철웅 이성도 최성기 류요한 권경철 명성인 김태영 손하람
협동목사	정창욱
강도사	김진산 최영광
전도사	곽혜정 조희숙 정경아 최선미 김현희 김미영 박숙현 양승희 이지연 김민성 김진하 이두호 조일권 김다영 이찬 이순이
교육전도사	이해선 김태훈 권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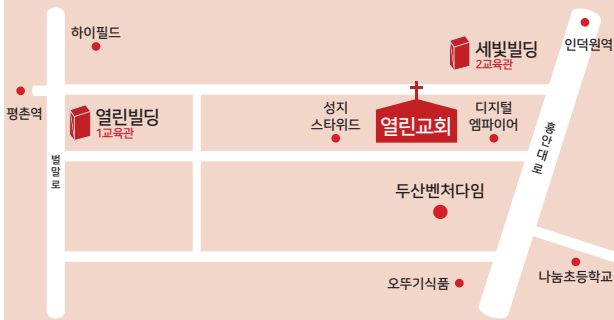
파송선교사

A국: 2 units / B국: 1 unit / C국: 1 unit
말레이시아: 양선우 & 전해림
에스와티니: 황아론 & 양진영 / 박현철 & 박상유
인도네시아: 신동진 & 정지현
태국: 김요한 & 이진
국내 디아스포라: 정진학 & 손원황

예배시간 안내

	구분	시간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본관 3층 예배실)
	2부	오전 10시 (본관 3층 예배실)
	3부	오후 12시 (본관 3층 예배실)
	4부	오후 2시 (본관 3층 예배실)
교회학교	영아부	오전 10시 / 12시 (별관 1층 교육실2)
	유아부	오전 10시 / 12시 (세빛빌딩 2층 교육실1)
	유치부	오전 10시 / 12시 (세빛빌딩 3층 교육실2)
	유년부	오전 10시 / 12시 (열린빌딩 2층 교육실3)
	초등부	오전 10시 / 12시 (열린빌딩 2층 교육실4)
	소년부	오전 10시 / 12시 (열린빌딩 1층 교육실2)
	중등부	오전 10시 / 12시 (열린빌딩 1층 교육실1)
	고등부	오전 10시 / 12시 (세빛빌딩 4층 교육실3)
	사랑부	오전 10시 (별관 1층 교육실1)
중국인예배 中国人礼拜		오전 11시 30분 (세빛빌딩 5층 중국실) 上午 11时 30分 (世光大厦 5层 中文室)
새벽기도		오전 5시 30분 (본관 3층 예배실)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본관 3층 예배실)
시편기도회		금요일 오후 8시 (본관 3층 예배실)
수요섬김기도		오전 10시 30분 (본관 1층 예배실)
백향목공동체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본관 1층 예배실)
화요전도기도회		오전 10시 (본관 1층 예배실)

찾아오시는 길



※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4번출구)에서 버스 환승하거나
평촌역(3번출구)에서 20분 정도 걸어오시면 됩니다

